

2/6
2022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본문: 행 26:15-18

Paul the Apostle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부 중보기도 : 목회1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 사라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 중보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1. 온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만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중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열납하여 주옵소서.
2. 죄인들을 구속하사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빼푸신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3. 지난 한주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귄보다, 오히려 육신의 편안함을 좇았습니다.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4.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받은 자 살아날 것이며, 성령에 충만한 자 능력을 행할 것이며, 성령과 동행하는 자 주의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시들어 때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사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5. 예배에 참석하신 새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시며 몸 된 제단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6. 모든 중보기도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자로 세워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빛으로 무장시키셔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 옆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권상욱목사, 2 & 3부: 김대규목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열어 기름부으시고 모든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 찬양할 때, 모든 묶임과 사망의 울무에서 해방되게 하옵시고 참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갖춰지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김기태목사, 변재령목사, 설성훈목사)

- 사회 담당 목회자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3. 대표 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전상열장로, 남양호장로, 권혁석장로)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올려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벧후 1:10]

1.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순간 성령이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2. 주의 종을 거룩하게 하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주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목사님의 삶에서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3.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삶을 본받아 저희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므로 헌신하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4.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자라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5.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영혼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과 더 깊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6.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조율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판단력, 지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7. 목사님을 위해 중보하고 돕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B.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심령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꿈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 사도 바울처럼 늘 기도함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한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 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대상16:29]

- 1) 만물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이 되게 하옵소서.
- 2)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마무리를 위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 3) 성도들의 기업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일터가 소명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며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 4)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 5)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미국을 위한 기도

- A. 미국에 국제적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 중국의 대만 위협, 그리고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평화를 구하게 하옵소서.
- B. 학교에서 진행되는 잘못된 이념교육과 퇴폐적인 성교육들을 막아주옵소서, 이를 위해 부모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미래 지도자들이 준비되는 각급 학교에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옵소서.
- C. 코비드-19 과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하시고, 위축되어 있는 이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돌아오는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 D. 현재 낙태반대법 심의를 하고 있는 대법원 판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한국을 위한 기도 :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며,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2. 여호와여! 주의 도를 이 땅에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위정자들을 지도하시며 교훈해 주옵소서. 우상과 미혹의 악한 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결의 영으로 임하셔서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잘못된 이념과 사상들이 무효화 되고 복음의 진리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5]. 아멘!



2022
HAPPY NEW YEAR

신년축복성회

TURNING POINT

일시: 2022. 2. 10(목)~13(주일)
 목(7:30pm), 금(5:30am, 7:30pm)
 토요일(6:00am, 7:30pm)
 주일(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 2:00pm)
 www.graceml.com/2022new

강사: 장순직 목사(원주대리교회 담임)
 장소: 은혜한인교회 본당

장순직 목사

TURNING

1. 신년축복성회(2.10.목-2.13.주일)와 강사 장순직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 부흥성회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충만히 임재 하시어 시간 마다 각양각색의 은혜와 은사를 풍성히 내리어 주옵소서! 시간마다 기도의 응답과 성경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3. 부흥성회를 통해 전도의 축제가 되게 하옵시고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는 축복의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신년 축복성회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2월1일은 한국에서는 구정, 설날입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구정을 특별한 의미없이 지나지만 한국에서는 큰 고유의 명절이지요. 구정,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새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GMT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여파로 대면 모임들이 취소되고 불편한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요즘 나아지는 분위기 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일천번재 새벽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 박사원에서 다문화 리더쉽 개발 연구소 개원과 박사원 확장 감사예배에 설교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레이스 미션대학교가 복음주의 신학교로 세계 선교를 위해 지도자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화요일에는 교역자 예배와 상담과 심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일에는 새해 첫 성도양육과정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펜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목자 세미나를 유튜브로 강의하고 줌으로 소그룹 모임을 갖는 형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건이 되면 대면으로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성도님들 사업체 개업예배, 심방을 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식사하며 교제하고 싶지만 매일 강단에 서야하는 저로서는 부담이 되기에 조심하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매일 매일 영적 전투를 벌이는 시간입니다. 펜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성도님들을 돌아보는 목양의 시간이 긴장된 일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자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번 신년 축복성회는 정말 믿음으로 열리는 집회입니다. 강사로 오시는 장순직목사님께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한국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참석하셔서 은혜받으시고 새 은혜로 새해를 승리하는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 목사 드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빛을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빛을 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빛을 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반드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서원기도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동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 28:20-22)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기도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의복을 주셔서 나로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 배고 자던 돌이 성전이 될 것이며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 중 십의 일을 반드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저는 처음 이 성경구절을 읽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분이 흔들리게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습니까? 혹은 야곱이 10의 1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물질이 궁하게 되실까요? 야곱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제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있는 소유를 다 털어 성전을 건축해 드릴 테니 그 곳에서 거하여 주시고 제게 있는 소유 중에서 10의 1을 주님께 드리겠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복을 주셔서 어떻게든 저를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도 들어줄까 말까 할 텐데 야곱은 기도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빛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껏 하나님께 빛을 청구하여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